

그린라운드가 무엇입니까

미나마타병 발생에서 환경선진국까지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즉「그린라운드」가 앞으로 크게 문제될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린라운드가 무엇입니까.”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우리나라 환경 기자들과 일본 아사히신문 환경담당 논설위원이 대담을 갖는 자리에서 빚어진 해프닝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이후 그린라운드가 제2의 UR로 등장할 날이 멀지않았다며 우려의 소리가 높지만 일본에서 그린라운드는 관심권 밖이었다. 그린라운드라는 개념조차 성립돼 있지 않으니 대화가 될리만무였던 것이다.

이러한 두나라간 커뮤니케이션 갭은 일본의 환경시설을 둘러보면서 서서히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한일합방등 응어리진 역사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아온 일본은 경제대국일 뿐만아니라 환경선진국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이후 환경을 도외시한 고도성장의 결과로 한세대가 지난 요즘 그 후유증으로 홍역을 앓고 있지만 일본은 산업화로 훼손된 환경을 복원시킨 것은 물론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신중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방비책을 세우는등 한발 앞서 나가고 있었다.



任泰淳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일본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기오염 측정항목의 하나인 아황산가스의 일평균 오염도는 지난 75년 0.043ppm으로 환경기준치 0.04ppm에 육박한 이후 계속 하강, 85년부터 0.01ppm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이 지난 91년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0.043ppm으로 월 평균 환경기준치 0.05ppm을 충족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이산화질소가 지역에 따라 환경기준을 웃도는 곳이 있으나 먼지등 다른 측정항목은 환경기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동경의 공기는 상쾌하게 느껴졌고 서울에서 쉽게 나타나는 자욱한 매연도 볼수 없었다.

수질도 음용수측정에서 불합격률이 80년이후 줄곧 0.05%를 밑돌아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 대

부분의 가정에서 수도물을 끓여 먹는 우리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이 이처럼 쾌적한 대기과 수질을 되찾게 된 것은 환경기초 시설확충등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오랜 시간 축적된 탓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환경파괴의 무서움을 몸소 체험한 것이 밑바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은 지난 60년대. 바다에 유입된 수은 중독으로 야기된 미나마타병이 발병 14년만인 67년 오랜 논란 끝에 정부로 부터 공해병으로 인정받으면서 공해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전통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후 공해기업은 여론은 물론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받아 더이상 받을 불일수 없게 됐으며, 이러한 인식은 자연적으로 기업에도 스며들었다.

미나마타병으로 현재까지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사설이 요즘도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라거나 도요다 자동차공장의 “우리는 지난 60년대부터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연구를 시작해왔다”는 말등은 이러한 변화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환경행정은 환경성, 후

생성, 건설성등으로 분산돼 있다.

환경성은 자연환경보전업무와 함께 수질, 대기 등 각종 환경기준을 제정하고 준수여부를 감시 감독한다. 건설성은 하수도, 도로, 주택건설업무 등을 맡고 있어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또 후생성은 폐기물처리와 정화조업무등을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가 분산돼 있지만 부처별로 책임한계가 명확히 구분돼 있어 비교적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역사도 깊다. 동경 시바하라 하수처리장은 일본에서 세번째 만들어진 것인데 1932년 건설됐다. 지난 76년 청계천에 국내 최초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우리나라보다 60~70년 앞섰던 것이다.

시바하라 하수처리장은 몇차례 시설 개보수를 거치긴 했지만 지금까지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연간 방류수 수질은 BOD 5ppm, COD 12ppm, SS 4ppm일 정도로 양호했으며 침전지위에는 모두 체육공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자연스럽게 씻어 주었다.

또 하나의 부러움은 오래 전에 건설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 얼마전 감사원이 경기도등 일부 하수처리장에 대해 감사를 실시, 부실시공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진 것과 비교하면 부럽기가 그지 없었다.

일본이 이처럼 건설공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항상 지진의 위



**일본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은 지난
60년대. 바다에 유입된
수는 중독으로 야기된
미나마타병이 발병
14년만인 67년 오랜 논란
끝에 정부로부터
공해병으로 인정받으면서
공해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전통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협을 받고 사시사철 태풍에 시달리기 때문이겠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이처럼 20~30년전부터 공해병이 발생하여 환경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나아가 환경관련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은 결과 일본은 환경우등국이 됐지만 그러나 일본도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처리장부족 혐오시설설치를 둘러싼 주민의 반대

등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일례로 동경도 쓰기나미구 쓰레기공장은 67년 건설계획이 세워졌으나 이웃 주택가 주민들의 반대로 10년간이나 공사가 지연됐다. 주민들과 “쓰기나미구의 쓰레기만 처리한다” “환경기준을 철저히 지킨다”는 등 제반원칙에 합의한 78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83년에야 이 공장은 가동을 할 수 있었다.

우리집 뒷마당에는 안된다는 님비(NIMBY)현상이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님비현상은 비단 쓰레기처리장 뿐만아니라 다른 혐오시설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일본은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매립지 부족은 물론 폐기물의 해양불법투기등의 문제가 환경관계자들의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환경마인드가 자리를 잡아 정부가 환경행정을 펴나가는데에는 한결 수월한 것도 사실이다. ◀